

* 부처의 깨달음을 구하는
마음 중에는 두려움을
없애주는 보시가 있다.

- 108 자재어중에서 -

세원소식지

www.sewonsa.com

*펴낸이 : 정 운
*편집인 : 유 진
*펴낸곳 : 세 원 사
*인 쇄 : 형제인쇄·광고

인생에서 중요한 만남, 혼인

정 운 (세원사 주지)

모든 인간관계의 최상은 '서로를 좋은 방향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해주는 관계'라고 합니다. 특히 대등한 인격체로 만나 평생을 함께할 부부는 서로에게 더 좋은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는 관계를 지향해야 합니다. 서로가 함께 함으로써 힘이 되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은 스스로 수행하여 성장하는 존재이기도 하지만, 나를 응원하고 믿어주는 이가 있을 때 더 큰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전해오는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옛날에 어떤 선비가 집안에서 정해주는 대로 혼인을 했는데, 부인의 행실이 고약합니다. 언행이 거칠고 아랫사람을 함부로 대하며 가까운 사람에게 제멋대로였던 거지요. 그래서 남편은 매일 부인에게 화를 내고, 차라리 보지 않으려고 피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음을 다스리려고 불교 경전을 펼쳤다가 문득 마음의 문이 크게 열리게 됩니다.

**사람은 모두 부처가 될 수 있는
성품을 지닌 존재이다.**

**본래부터 불성(佛性)의 씨앗을 지녔기에
누구든 번뇌를 가라앉히면
청정한 본성을 찾을 수 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은 옷과 갓을 갖추어 입고 사당에 가서 조상에게 절을 올린 뒤 아내에게 공손

하게 절을 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나무라고 피하던 남편이 갑자기 절을 하자, 부인은 놀라서 욕을 하며 다른 방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도 그다음 날도 남편은 한결같이 절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신은 본래 귀한 분이요. 내가 겉모습만 보고 당신을 그토록 구박하였구려. 용서하십시오.”

그렇게 하기를 한 달 두 달, 부인은 자기도 모르게 단정한 몸가짐으로 공손히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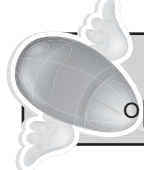
“왜 자꾸 이러십니까? 이제 다시는 예전처럼 안 그럴 테니 제발 절은 그만하십시오.”

“당신은 부처님과 같은 분이요. 그런 당신에게 어찌 절을 안 할 수가 있겠소?”

남편의 변함없는 정성에 결국 부인도 함께 맞절을 시작했지요.

“당신이 저에게 부처님이라고 하시지만, 참으로 부처님은 당신이십니다.”

이렇게 남편과 부인은 서로 외면하고 소리치던 관계에서 부처님으로 만나게 된 것이지요. 이 이야기는 '모든 것이 마음에서 비롯한다'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되새기게 합니다. 누구나 할 수 있고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으면서, 우리는 스스로 가장 가까운 사람과의 갈등으로 마음을 지옥처럼 만들고 있는 건 아닐까요. 돌이켜보면 부처님이나 성인군자만이 할 수 있는 일도 아



www.sewonsa.com

이제 '스마트폰'에서도 세원사 홈페이지를 만날 수 있습니다. / 많은 방문 하시길 바랍니다.

닌데 말입니다. 한 생각 돌이킬 때 모든 업은 녹아나고, 한마음 되돌리면 참된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상대를 살림으로써 내가 더 크게 살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부부관계의 핵심입니다.

‘사람 인(人)자’를 보면, 두 획이 비스듬히 서로 기댔으로써 서 있을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인간은 본래 함께 힘이 되어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상대를 배려하지 않는 순간, 두 사람 모두 쓰러지고 맙니다. 앞서 살아온 어른들은 새로운 만남을 앞둔 젊은이들이 서로를 살리는 존재, 서로에게 힘이 되는 존재가 되어 나란히 걸어가기를 축복해 줍니다.

불교에서는 부부의 만남이 한량없는 세월을 거쳐 전생의 소중한 인연에 따른 것임을 강조합니다. 불교 혼례의 가장 큰 특징도 바로 이러한 인연법을 강조하는 것이지요. 실제 불교식으로 혼례를 하지 않더라도 불교에서 말하는 부부의 인연이 어떠한 가르침을 담고 있는지, 불교 혼례의 기원을 통해 살펴봅시다.

불교 혼례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전생 부부인연을 담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수많은 본생담(本生譚: 자타카)이 전한다는 것을 알고 계실 텐데요. 부처가 되기 위해서는 다생에 걸친 노력과 수행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 석가모니 부처님이 전생에 여러 모습으로 태어나서 쌓은 수많은 공덕을 이야기한 것이 본생담입니다. 그 가운데 부부인연을 담은 내용으로 ‘연등불의 수기(授記)’라는 제목의 본생담이 있습니다. 『아함경』 「수행본기경(修行本起經)」.

연등불이 출현한 아득한 과거에 석가모니는 선혜(善慧)라는 이름의 선인(仙人)으로 태어나 수행하고 있었지요. 어느 날 그 나라의 수도에 연등불이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선혜 선인은 부처님을 친견하고자 마을로 내려가게 됩니다. 어느 마을에서 500명의 제자를 거느린 바라문을 만나 설법을 해주고 답례로 500냥의 은전을 받게 되자, 그 돈으로 연꽃을 사서 연등불께 공양 올리리라 마음먹었지요. 그러나 연꽃은 이미 국왕·대신·귀

족들이 모두 사들인 뒤라서 한 송이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에타는 마음으로 연꽃을 구하던 중, 한 여인이 일곱 송이의 연꽃을 품에 안고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녀는 구리선녀(俱夷仙女)라는 수행자였는데, 연꽃을 감췄지만, 선인의 법력과 인연으로 연꽃을 볼 수 있었던 거지요. 반가운 마음으로 여인에게 다가가 연꽃 다섯 송이를 팔라고 했으나, 선녀는 파는 꽃이 아니었기에 아예 살 엄두를 내지 못하도록 한 송이에 은전 100냥이라고 터무니 없는 값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선인이 은전 500냥을 선뜻 꺼내주자 선녀는 놀라서 그 까닭을 물었지요.

연등불께 꽃을 공양하고 설법을 듣기 위함이라는 말을 들은 선녀는 감복했고, ‘다음 세상에 태어나 당신이 성불할 때까지 아내가 되고 싶다’는 원을 말하며, 이를 들어준다면 다섯 송이를 주겠다고 합니다. 이에 선녀의 청을 허락했고, 선녀는 자신의 뭇인 두 송이까지 모두 일곱 송이를 주면서 부처님께 함께 올려주기를 부탁했습니다.

이윽고 선인이 연등불이 계신 곳에 도달하니, 국왕과 부호들이 연꽃을 한 수레씩 싣고 와서 연등불을 향해 던지며 공양했지요. 그런데 꽃은 모두 연등불 근처에 가지 못한 채 땅에 떨어졌고, 정성이 지극하고 불심 깊은 이들의 꽃은 몸에 닿거나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맨 뒤에 있던 선혜 선인이 자신의 뭇인 다섯 송이 가운데 첫째 꽃을 던지자, 놀랍게도 그 꽃은 연등불의 정수리에 사뿐히 엮혔지요. 두 번째 꽃은 처음의 꽃 위에 올라가고 세 번째 꽃은 다시 그 위에 올라가 다섯 송이가 5층탑의 신비한 모양을 이루게 됩니다.

선인은 환희로운 마음으로 구리 선녀의 뭇을 던지자, 이번에는 첫 번째 꽃이 연등불의 왼쪽 귀에, 두 번째 꽃은 오른쪽 귀에 올라앉았습니다. 사람들은 탄성을 올렸고, 연등불은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장하고 가혹하다. 도를 구하는 정성이 지극하여 이렇듯 상서로운 경사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대는 이후 수 없는 세월이 지나 부처를 이룰 것이니, 그 이름을 석가모니불이라 하리라.” 하

고, 석가모니 부처가 될 것을 예언했습니다.

이처럼 석가모니의 전생 인물인 선혜 선인과 구리 선녀가 연등불께 바칠 꽃을 나누며 내생의 부부가 될 것을 언약했습니다. 따라서 많은 생이 지난 뒤 선혜 선인은 싯다르타 태자로, 구리 선녀는 야소다라로 다시 만나 내세에 부부가 되자던 두 사람의 언약이 이루어진 것이지요. 이후 출가한 싯다르타는 부처를 이룸으로써 연등불이 '깨달음을 얻어 부처가 될 것'이라 했던 예언 또한 실현되었습니다.

이제 오늘날 우리는 불교 혼례로 돌아와 봅시다. 불교에서는 우리 고유의 전통에 따라 주례를 두지 않고, 스님은 증명 법사로서 부처님께 고하는 축원문을 읽게 됩니다. 따라서 불교 혼례는 두 사람의 만남을 부처님께 고하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살 것을 깊이 새기는 성스러운 약속입니다.

예식이 시작되면 신랑과 신부는 각각 다섯 송이와 두 송이의 꽃을 든 채, 나란히 함께 입장합니다. 그 꽃을 증명법사 스님께 드리면 스님은 다시 부처님 전에 올리게 됩니다. 사찰이 아닌 곳이라면 단상에 올려놓는 것이 곧 부처님께 올리는 것을 뜻하지요. 이러한 헌화 의식은 바로 부처님 본생담에서 선인과 선녀를 맺어준 꽃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불교에서는 혼례·결혼식이라는 말 대신 화혼식(花婚式)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부처님의 전생 부부인연을 맺어준 본생담에 따라, 신랑·신부가 자신의 꽃을 부처님께 바치는 의식은 참으로 아름다운 서약입니다. 이는 부부의 만남이 단순한 남녀의 결합이 아니라, 전생의 깊은 인연으로 맺어지게 된 것임을 상징하고, 마음에 오롯이 새긴다는 뜻을 지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 앞에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을 맹세했기에 부부의 앞날에는 한량없는 부처님의 가피와 축복 또한 함께하겠지요. 반드시 불교식 혼례를 치르지 않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랑·신부가, 또는 두 사람의 부모가 부처님께 귀의하며 원을 세운다면 부처님은 어김없이 가피를 보내시는 분입니다.

살아간다는 것은 고난과 역경의 연속이기도 합니다. 때로 바깥에서 생기는 일보다 가정에서 일어나는 갈등 때문에 더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크게 두 가지 때문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첫째는 '말'입니다. 가족끼리 생기는 갈등의 가장 큰 원인은 말에 있다는 것이지요. 상대를 생각해 서 한다는 말이 오히려 가시가 되어 상처가 되고, 가깝다는 믿음으로 무심코 던진 말이 남에게서 들은 것보다 몇 배의 고통을 줄 때가 많습니다. 말의 속성이란 묘한 것이어서, 상황에 따라 평소의 마음이나 생각과 다르게 날아다니기도 합니다. '혀 아래 도끼 들었다'라는 속담처럼, 끊임 없이 주고받는 말을 항상 조심해야 하며, 더불어 말은 '구입'이 된다는 것을 깊이 새겨야 합니다.

둘째는 우리가 너무 많은 일을 걱정하며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직 오지 않은 일을 미리 걱정하고 애타우며, 이미 지나간 일을 후회하고 안타까워합니다. 물론, 미리 대비하는 삶, 지난 잘못을 돌아보는 삶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것들에 대해 지나치게, 끊임없이 신경을 쓰고 에너지를 낭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하루에 집중하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에게 집중하기 힘들어지게 됩니다.

함께 살아가는 부부와 가족이 깊이 새겨야 할 말입니다. 일상의 순간순간, 하루하루를 함께하는 존재가 바로 부부요, 가족이기 때문이지요. 일상이 무겁고 힘들면, 일생의 삶 전체가 무겁고 힘들게 됩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 낮에 잘린 갈대처럼 시든 삶을 살다 가셔야 되겠습니까. 내가 맑고 밝으면 상대도 절로 맑고 밝게 됩니다. 우리 모두 부처님의 품 안에서 옆 사람과 나란히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조금은 가볍고 밝게 저마다의 꽃을 피우며 살아갑시다. ☺



세원소식

후원금 현황

성명	금액	성명	금액	지출	
이정옥	50,000	최민기	30,000	청소년교회연합회	1,000,000
박순애	30,000	명청소년소아과	50,000	보령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200,000
이원호	50,000	박인자	50,000	보령시청소년문화의집	100,000
이주연	20,000	김현준	10,000		
부성보	50,000	유정현	10,000		
행복한약국	50,000	유진스님	20,000		
박명호	30,000	권현지	10,000		
양정하	30,000	이건림	20,000		
오희순	30,000	장현주	30,000		
오현자	30,000	임석진	50,000		
강상훈	20,000	이경화	50,000		
유성운	30,000	김중성	50,000		
이용렬	50,000	곽신애	20,000		
강진아	20,000	광명전기	50,000		
김규태	20,000	영보연탄	50,000		
최부호	50,000	배두성	20,000		
유홍주	30,000	형제인쇄.광고	30,000		
권송은	20,000				
이영구	50,000				
최창	50,000				
서동창	10,000				
이선엽	30,000				
한명현	20,000				
조명연	50,000	계	1,370,000	계	1,300,000

여러분의 후원금은 청소년 교화사업에 쓰여집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랍니다.

후원금은 2023년 10월 13일~2023년 11월 10일까지 입금된 것입니다.

<351-0988-2053-63> 농협(세원아정) 후원금 통장입니다. 원하시는 분 입금 부탁드립니다.

위 내역은 시보조금을 제외한 순수한 자부담 지출입니다.



보령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 ◆ 매주 화요일 : "그림책만들기" "사랑의교실"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 ◆ 매주 수요일 : "바리스타교육" "분노조절" "대인관계향상" "사랑의교실"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 ◆ 매주 목요일 : "품성계발" "긍정마인드향상" "자아존중감향상" "자기조절"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 ◆ 매주 금요일 : "품성계발" "긍정마인드" "집중력향상" "대인관계" "검정고시학습반" "사랑의교실"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 ◆ 매주 토요일 : "검정고시학습반" "자원봉사" "가족캠프"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보령시청소년문화의집

- ◆ 매주 화요일 : "방송댄스"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 ◆ 매주 수요일 : "가야금배우기"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 ◆ 매주 목요일 : "다도체험하기"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 ◆ 매주 금요일 : "민화교실" "유노이아"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 ◆ 매주 토요일 : "기타배우기" "대유행예감" "드럼배우기" "건강한밥상" "정보검색대회"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 ◆ 매주 일요일 : "원뿔"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